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1 주차 (롬 1:1~5)  
(2017년 1월 1일 - 2017년 1월 7일)  
(제 5 권 1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5 권-제 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1 월 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로마서를 시작하며(주일)

### 독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단연 로마서를 첫 손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로마서 말씀을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기독교인이란 누구나 다 아는 루터 역시도 종교 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죄 문제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게도 로마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책이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부터 남다른 신앙 활동을 했고, 목사와 선교사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에겐 늘 마음의 평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주최한 성경 사경회에서 읽어 내려가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일기장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습니다. 집회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지요. 9시 15분전후로 기억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일기중).

로마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로마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반대로 로마서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시금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복음을 가장 잘 풀어낸 글이다. 저자 바울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논리로 복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복음이 이론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현실의 고민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로마서를 읽어 가면서 하나 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로마서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되 공동체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숙해 가게 돼 있다. 누구나 인간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없이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인간들은 각자의 매무새를 바로 하고 서게 되는데 이때 그 거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주는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다. 로마서는 그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은 로마서를 통해 각자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발견해야 한다.

로마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외치고 있지만 동시에 내면화된 율법도 강조한다.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다다르면 반드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율법이 발견된다. 그렇기에 율법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린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프리패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을 하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두 번씩이나 비난조로 질문을 한다. 로마서 3장과 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비난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비난의 요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다. 로마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노력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얽매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이다.

로마서는 이 모든 것에 균형을 잡아 주는 책이다. 율법을 강조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에 굴종하는 종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방종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은 놀라운 섭리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율법에 반하는 것을 방종이라 여긴다면 오히려 자유와 은혜는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방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라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신앙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복음은 인간의 삶을 초월한 가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 그 자체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로마서가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를 통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멋진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조용히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시며 복음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묵상을 통해 각자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로마서 개요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로마서 전체)

로마서를 하루에 다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전체라고 해서 오늘 하루 안에 로마서 전체를 다 읽고 묵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로마서가 하나의 편지이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전반적인 구조나 틀은 학자마다 각기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로마서의 첫 부분 (1:1~17)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소개와 인사, 편지를 쓰게 된 목적, 복음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다. 특히 1 장 17 절에 설명된 복음의 정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간결하고 명쾌하며 강렬하다. 종교 개혁자 루터가 바로 이 구절을 읽고 온전한 회심을 경험했을 정도니 말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고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로마서 둘째 부분(1:18~15:13)은 복음에 관한 바울의 본격적인 논증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1:18)로 시작되는 논증은 “율법의 의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절망적 선언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율법없이 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더더욱 절망적인 것은 의를 행하는 건 고사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할 능력조차 없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오로지 절망뿐이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로마서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한다. “누니 데”(Nun ist!) 이 말을 번역하면 “그러나 지금...”이다. 이 표현은 논증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답답하고 절망적이던 인간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서광처럼 비치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바울의 표현은 놀랍게도 1 장 18 절의 인간에 대한 절망적 선언과 꼭 닮아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3:21)고 선언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임을 논증한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다분히 선언적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명을 선뜻 받아들일 거라거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리라 여기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바울 자신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런 독자들을 논증으로 설득하기 시작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니 그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이야기다. 그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다!”라는 선언으로 독자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5:1).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8:38).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8:39). 8 장까지 로마서를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며 꼼꼼하게 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복음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을 열고 읽으면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에는 발끈하고 나설 사람들도 있다.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민으로 살았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며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 말이다. 유대인이라고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논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밝힌다(9:1).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바울 역시도 유대인이었고, 선민 의식에 누구보다 깊게 젖어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이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다 불순종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두셨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물을 베풀기 위해서다.(11:32).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11:33).

인간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기주도형 삶에서 성령주도형 삶으로 모든 게 바뀐다. 다시 말해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하게 된다(12:1-2).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끼리 서로 용납하며 아무 것도 판단하지 않게 한다. 이처럼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다(15:6).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15:14-16 장)은 바울 자신의 사역과 문안 인사로 끝맺고 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다. 그는 편지를 끝맺기에 앞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단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알다시피 로마는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에 불과했다. 그는 앞으로의 자신의 일정을 상세하게 밝힌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러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한 현금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나서 편지의 맨 마지막은 문안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안부를 물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질풍노도처럼 온 로마 제국을 복음 하나로 휘젓고 다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섬세하고 따뜻한 면을 보게 된다. 그의 편지의 끝문장은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배달된 한 위대한 사도의 편지가 놓여 있다. 이 편지를 뜯어 보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다 함께 그 능력의 복음 안으로 멋진 여행을 떠나 보자.

## 목상을 위한 질문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 바울 그는 누구인가?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1:1~7)

(1절) 바울 (Παῦλος)

예수 그리스도의 종 (δοῦλο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κλητὸς ἀπόστολος)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자 (ἀφορισμένος εἰς εὐαγγέλιον θεοῦ,)

(2절)

미리 약속된 것(ὁ προεπηγγεῖλατο)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διὰ τῶν προφητῶν αὐτοῦ)

성경에 의해 (ἐν γραφαῖς ἁγίας)

그의 아들에 대한 (περὶ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3절)

다윗의 씨로 나신 (τοῦ γενομένου ἐκ σπέρματος Δαυὶδ)

육신을 따라 (κατὰ σάρκα,)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τοῦ ὀρισθέντος υἱοῦ θεοῦ ἐν δυνάμει)

(4절)

성령을 따라 (κατὰ πνεῦμα ἁγιωσύνης)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ἐξ ἀναστάσεως νεκρῶν,)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그를 통하여 (δι' οὗ)

(5절) 우리가 받았습니다(ἐλάβομεν)

은혜와 사도됨을 (χάριν καὶ ἀποστολήν)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εἰς ὑπακοήν πίστεως ἐν πᾶσιν τοῖς ἔθνεσιν)

그의 이름을 위하여 (ὑπὲρ τοῦ ὀνόματος αὐτοῦ,)

(6절)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ἐν οἷς ἐστε καὶ ὑμεῖς)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κλητοὶ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7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 (πᾶσιν τοῖς οὖσιν ἐν Ῥώμῃ ἀγαπητοῖς θεοῦ,)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 (κλητοῖς ἁγίοις,)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χάρις ὑμῖν καὶ εἰρήνη)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ἀπὸ θε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다.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중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시켰다. 자신이 누구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으며, 우리가 복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한 문장 안에 모두 담아두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의

마다. 그런 의미에서 동어반복이라 하겠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동어반복까지 해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일 게다. 여기서 잠시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도도 로마에 교회를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맞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와 가정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또한 회심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들도 로마 교회 공동체로 모여 들었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서로 협력하고, 때론 갈등하며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마의 역사가 수토니우스(Suetonius)에 따르면 로마 내에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유발했고, 이를 보다 못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축출했다고 한다.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든 유대교를 고수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로마를 떠나야 했다. 그때 로마로부터 쫓겨난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부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되었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 로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행 18:2 참조).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잠시 로마를 떠났다가 되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떠나가 있는 동안 로마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축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절기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 절기와 음식 규례는 율법이나 종교 이상으로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 무너진 자신들의 전통을 다시 세우고자 노력했다.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없는 데다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던 로마 교회는 스스로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한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δούλος)다. 둘로스는 당당한 한 인간으로 호적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등재된 일종의 물건과 비슷하다. 오늘날의 부동산과 같은 개념으로 ‘살아있는 재산’을 둘로스라 했다. 당연히 둘로스에게는 의지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다. 제 아무리 부당한 지시라 해도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오로지 주인에 의해 조종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둘로스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했다. 그 말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다. 그리스도가 가라 하면 가고 남으라 하면 남았다. 오직 그리스도가 말하라는 것만 말했고, 전하라는 것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정체성일까? 우리는 어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도 바울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차별이 없다. 따라서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겼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 놓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1)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르심을 받는다.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와 구분하기 위해 평신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유한 기능을 담당한다. 단지 복음을 소비하기만 하는 성도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각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sup>4</sup>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sup>5</sup>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sup>6</sup>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sup>7</sup>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sup>8</sup>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훈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3-8).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역을 맡겨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란 능력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로서도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엡 4:12 참조).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열두 명을 불러 복음 전도를 위해 따로 세우셨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열두 사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 열두 명을 따로 세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 그러다가 후에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 맛디아를 사도로 뽑아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그들이 바로 사도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다. 그 때문에 당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반발한 자들이 꽤 있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후 11:5 참조).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 사도권은 매우 중요했다. 바울은 이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 오셨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 오시기 전까지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들의 수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선 자다. 그가 급히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이유도 한시라도 빨리 복음의 씨를 말려 유대교의 최대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

심이 있었으나”(갈 1:13-14).

바울로 불려지기 전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던 셈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요 16:2-3).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건지도 모른 채 살고 있던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찾아 오셨다. 바울은 훗날 자신을 재판하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날의 일을 이렇게 간증했다.

“<sup>10</sup>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sup>11</sup>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sup>12</sup>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sup>13</sup>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sup>14</sup>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sup>15</sup>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sup>16</sup>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sup>17</sup>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sup>18</sup>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10-18).

바울의 사도권은 매우 특별했다. 바울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 오셨고, 그를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의무를 매우 충실히 이행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취한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 따라서 그가 자신을 사도라고 천명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책이 없다. 오직 모두가 동일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나 사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삶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날마다 돌아볼 일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복음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1)

바울의 논증은 매우 체계적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먼저 그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롬 1:1 하~2 참조).

바울의 이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외된 복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에 인간들이 끼어들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다.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복음이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 (Good News)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에 의해 완성된 복음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담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25).

이 간단 명료한 선언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완성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 그렇기에 죄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흠결을 눈감아 주신다거나 법적인 하자를 없던 것으로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다. 도덕적 흠결과 법적 하자는 이 땅에서 비난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또 그래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대립과 심판의 관계에서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복음은 실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실제고 부활하신 것도 실제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실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생생히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체험케 했고, 제사 제도를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이다.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복음의 실체를 기록하고 있다면 구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바울은 복음을 “그의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의해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바울의 말대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해 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이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한 사실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관한 기록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복음은 매우 역설적이다. 외견상으로는 이방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옛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배웠고 훈련해 왔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으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는 반드시 율법이 지시한 대로 드려야 한다. 제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당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손에 의해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셨다. 복음이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에서조차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시내산에서 내려진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그 율법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크나 큰 충격을 받았다. 구약이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울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 아들을 죽이는데 바울도 앞장섰던 사람이니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난 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행 26:14).

자신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자부했던 바울이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열심이 오히려 복음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바울이기에 로마서에서 그는 과거의 자기처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

바울의 안타까운 외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전인수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다. 말이 신앙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성경 지식에 해박하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훼방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들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복음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2)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곧 복음이다. 바울의 논증은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른다. 바울은 예수님을 육적인 근원과 영적인 근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다. 다윗의 씨로 나셨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당시 성경의 주된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다윗의 씨가 지니는 의미는 남달랐다. 오늘날도 그랬지만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였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현세적, 정치적이었고 그 중심에 다윗이 있었다. 다윗은 단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구체적인 메시아의 상징이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대는 성경 말씀에 그 근거를 둔다. 하나님은 일찌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 11:1).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5-6).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다. 그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인 동시에 육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들이나 병자들은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 종종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른 적이 많았다. 장님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 대표적인 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따랐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예수님 일행이 통행에 방해받게 된다. 바로 바디메오의 한 마디 외침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막 10:47).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존귀한 자, 곧 하나님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이름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로 삶을 연명하던 비참한 존재였다. 그런 육적인 고통에서 그를 구원해 준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 그렇기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단지 족보에 한정된 표현이 아니라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이웃한 모든 족들을 평정하여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 온 다윗을 계승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준 진정한 구세주

라는 뜻이기도 하다.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존재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사건을 부활로 설명한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들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바울은 그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이다. 잘 알다시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sup>42</sup>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sup>43</sup>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sup>44</sup>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sup>45</sup>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sup>46</sup>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sup>47</sup>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sup>48</sup>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sup>49</sup>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2-19).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정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도 부활을 통해서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부활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뒤로 한 채 현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신다.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사실임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 무한한 은혜와 감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당신은 정말 성령의 임재 아래 있는 자라고 확신합니까?

## 은혜와 사도됨을 받았다!(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3-5)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지만 매우 심도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한다. ‘엘라보멘’(ἐλάβομεν)!(‘우리가 받았다’라는 뜻임).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처음 쓰인 동사다. 그 말은 지금까지 바울은 이 동사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뜻한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일인칭 단수로 말하지 않고 일인칭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까지 다 아울러 말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사도됨이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 사실 은혜라는 용어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 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만큼 무분별하고 왜곡되게 사용되는 단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들을 때 흔히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감동받은 것을 은혜받은 것과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인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은혜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그의 의를 얽치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은혜다. 그렇기에 은혜는 긍정적 감정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감정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죄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셨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몸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이다. 죄인이 당해야 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죄인에게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 것이다.

인간들은 종종 복음을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으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죄사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을 얻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우리에게 값없이 왔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전혀 치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다. 그렇기에 은혜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채무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이 엄청난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

사도됨은 바로 은혜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없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았고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기에 사도됨은 피라미드 같은 교회 공동체의 최상단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둘로스’로 생각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인식한 것이다. 바울은 스스로를 성직자라 여기지도 않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높



은 위치에 두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됨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술회하기도 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sup>10</sup>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sup>11</sup>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없고<sup>12</sup>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sup>13</sup>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고전4:9-13).

사도 바울은 한번도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운 적이 없다. 그가 말하는 사도됨이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멸시당하는 것이며, 주리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없이 떠돌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을 의미했다. 사도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비천한 자리, 세상의 환영 대신 목숨 걸고 돌을 맞는 자리에 서는 자다. 사도들이 세상 잣대로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세상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알겠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놓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도됨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해 들어본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은혜의 의미를 알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됨은 사도됨과 동의어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은혜를 더 받은 자인가? 그가 우리보다 더 사악한 죄인이었고 우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꿔 놓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선언한다. “우리가 받았습시다!” 그리고 그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어떤가? 당신들은 받지 않았는가?

## 목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위임받았나요? 당신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